

응답표지 기능의 {됐어}류에 대한 연구

안주호

(남서울대학교)

<Abstract>

Ahn, Joohoh. 2014. A Study of function meaning {dwaess-eo} as a Korean response marker. *Korean Semantics*, 46. This article is aimed at the meaning features of {*dwaess-eo*}, context-dependent response marker, and grammaticalization process in spoken Korean corpus. The response marker {*dwaess-eo*} derived from the verb {*doe-ta(become)*}, has the positive signs like {Yes} as well as the negative signs like {no}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verb {*doe-ta*} has the argument structure of [NP1-i/ka NP2-i/ka], and basic meaning of '(what) to fit standard'. So this means NP1 reached to the reference point (or target position). Meaning of the {*dwaess-eo*} is changed into the direction of [completed person's utterance or action → Understanding → satisfaction of current state → refusing speaker's request]. The fact of grammaticalization of {*dwaess-eo*} is known through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like this. The {*dwaess-eo*} as a discourse marker is combined the only past tense endings {-eoss-}, impossible of present tense or future tense. In addition to, the syntactic argument structure of the original reduction is impossible. In conclusion, the {*dwaess-eo*} is one of the discourse markers through the grammaticalization.

핵심어: response marker, discourse marker, Korean Spoken Corpus, grammaticalization, Verb {*doe-ta*}, {*dwaess-eo*}

주제어: 응답표지, 담화표지, 한국어 구어 코퍼스, 문법화, 동시 {되다}, {됐어}류

1. 문제제기

담화표지는 발화 사이에서 전달의 응집성과 결속성을 갖게 해 주거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는 본래 어휘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담화적 맥락에 의존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문법화 한 것이 다수 있다.

- (1)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저기 말야, 그때 사실 다 말 못했는데
 다. 거 좀 가만히 좀 있을 수 없어?
 라. 나한테 막 이렇게 말 하길래...
 마. 이제, 그러게 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1)의 (가)는 동사 {있다}에서 출발하여 화제의 시작을 나타내는 {있잖아(요)}로, (나)는 {말이다}는 ‘명사+이다’구성에서 출발하여 화제의 도입을 나타내는 {말이야}로, (다, 라)는 부사 {조금, 마구}에서 출발하여 ‘주장 강조하기’나 ‘주의집중(관심끌기)’ 기능을 하는 {좀, 막}으로, (마)는 {그러하다}에서 출발하여 담화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게}라는 담화표지로 문법화한 예이다. 이외에도 담화표지에는 본래 대명사에서 출발한 {거시기, 저기, 이거, 어디, 뭐, 왜}나 관형사에 출발한 {이, 그, 저, 무슨, 웬}, 그리고 감탄사에서 출발한 {자, 네/예, 응, 아니, 글썸, 네/예, 그래}, 부사에서 출발한 {조금, 참, 이제, 그냥, 마구}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담화표지 중에는 선행 발화에 대한 대답말의 기능을 하는 응답표지가 있다. 응답표지 중에는 {되다}에서 출발한 {됐어}류가 있는데,¹⁾ (2)에서와 같이 {됐어요}는 선행 제안에 대한 응답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 가: 차 좀 드릴까요?
 나: 됐어요.

1) 이 글에서는 {됐어(요), 됐네(요), 됐습니다, 됐다, 됐다고, 됐다니} 등의 대표형을 {됐어}류로 표시한다.

예문 (2)에서는 ‘차를 마시겠느냐’는 (가)의 제안에 대해 (나)는 {됐어}류로 대답함으로써 응답표지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응답표지인 {네/예/응, 아니(요)}과 달리 {됐어}는 긍정을 나타내는지, 부정을 나타내는지 이 발화만 가지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3),(4)와 같은 상황에서 쓰인 {됐어}도 응답의 기능을 하나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긍정을 하기도 하고 부정을 하기도 한다.

(3) P7: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P11: 됐어.

P7: 그러지 말고 같이 가아.

P11: 됐다니까.

(4) P1: 선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한 거 있어?

P2: 아니, 근데 패션 소품 중에서 고르면 어떨까? 선글라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P1: 됐어, 그거 좋겠다. 선글라스

세종계획 구어 코퍼스에서 발췌한 (3)의 {됐어}류는 {아니, 싫어} 등과 같은 부정표지로 해석되는 반면, (4)의 {됐어}는 {응, 좋아, 그래} 등과 같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됐어}는 응답 기능을 하지만 긍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을 나타내기도 해서, 실제 담화상황에서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²⁾

이 글에서는 동사 {되다}에서 출발하여 응답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됐어}류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기본적으로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모국어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세종계획 코퍼스 중 소설을 포함한 문어코퍼스와 일상 대화, 청문회 등을 포함한 구어코퍼스를 100만 어절을 자료로 삼는다.³⁾

2)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모두 해석되는 응답표지에는 {괜찮아}류, {글썸}류, {좋아}류, {싫어}류, {맞아}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됐어}류만을 다룰 것이다.

3)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자료이므로 하나하나의 출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됐어}류는 아직까지 응답표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동사 {되다}의 활용형으로만 기술되고 있다. 응답표지는 담화표지 중의 하나로서 한국어 담화표지는 Schiffrin(1987)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담화표지를 “담화의 단위를 구분하는 연속적이고 의존적인 요소”(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원표(2001)에서는 담화의 단위를 문장만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작은 구와 단어 단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담화표지가 발화의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⁴⁾ 본 연구에서 담화표지는 발화의 전달에 관여하면서, 발화 간 의미 결속을 해 주는 요소로 정의하려고 한다. 즉 발화를 연결해 주면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담화 구조를 표시하는 등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요소인데 그 중의 하나가 응답표지이다.⁵⁾

담화표지 중 응답표현을 다룬 것으로는 이필영(1999)이 있으며, {아니}를 의지감탄사로 분석한 남기심·고영근(1985)과 긍정 의지표현인 {네}의 상대역으로서 부정 의지표현으로 {아니}가 사용되기보다는 {싫어, 안돼}가 사용된다고 지적한 이원표(1995)가 있다. 또한 고맥락 사회에서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예/아니}의 담화기능을 살핀 이한규(2011, 2012)가 있으며, 감탄사에서 출발한 {네/예, 응, 어, 음, 아니} 등의 의미기능을 다룬 안주호(2012)가 있다. 이외에도 용언이 담화표지로 문법화한 것을 다룬 연구로는 {있다}의 문법화를 다룬 이수련(2003), {괜찮다}를 다룬 허상희(2007), {말이다}를 다룬 김민국(2011), {그러-}계열의 담화표지를 다룬 안주호(2000), {그러계}의 기능을 다룬 안윤미(2012) 등이 있다. {됐어}류에 대해서는 허상희(2004)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대응량의 실제 구어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4) 이것은 ‘군말(김종택 1982)’, ‘머뭇거림이나 입버릇(남기심·고영근 1985)’, ‘주저어와 부가어(노대규 1996)’, ‘담화불변화사(discourse particle)(Stubbs 1983, Levinson 1983, Schourup 1985)’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화용표지(pragmatic marker)(Brinton 1996, 이정애 2002)’,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Schiffrin 1987, Fraser 1999, 안주호 1992)’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5)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해서는 안주호(1992), 임규홍(1998), 이정애(2002) 등의 기초적 연구가 있으며, 개별적인 형태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됐어}류의 전체적인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됐어}는 {잘되다, 안되다, 못되다}와 같이 복합어로 만들어져 구어 발화에서 {잘됐어, 안됐어, 못됐어}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독립되어 사용되는 {됐어}류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한다.

3. {됐어}류의 의미기능

{됐어}류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됐어}는 {되다}에 {-었-}이 결합되어 ‘-이 이루어졌다’의 의미로 무엇이 목표점에 도달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긍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부정을 표시하기도 한다. 먼저 {되다}의 의미와 사용부터 살펴본다.

3.1 {되다}의 의미와 사용

{됐어}류가 출발하게 된 {되다}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부터 알아본다.

(5)[1] 【…이】

-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 「2」 【…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 「3」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른다.
- 「4」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른다.
- 「5」 어떤 대상의 수량, 요금 따위가 얼마이거나 장소가 어디이다.
- 「6」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

{되다}는 (5)와 같이 사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⁶⁾ {됐어}류의 문법화는 동사 {되다}에서 비롯되었는데, {되다}의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논항구

6) 이 외에도 {되다02}는 ‘말, 되, 흙 따위로 가루, 곡식, 액체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다’로, {되다03}은 ‘논밭을 다시 갈다’로, {되다04}는 형용사로서 ‘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 줄 따위가 단단하고 팽팽하다, 일이 힘에 벅차다,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 농도가 매우 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는 {되다}만을 다룬다.

조로 설정할 수 있다. 김동식(1984)은 {되다}를 ‘(어떤) 기준에 맞음’을 뜻한다고 밝혔는데, 이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은 (6)과 같다.

- (6) 가. "그건 그렇고 하준이는 준비가 됐어, 어째?" 과외를 시작하게 됐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아버지의 당부 섞인 말씀이었다.⁷⁾
 나. 당신도 대학 땀 공부 잘했는데 나 때문에 아줌마 다 됐어.
 다. 자네는 이제 어엿한 소설가가 됐어. 만인이 인정하는 소설가야.
 라. 나 술 완전히 끊은 것 알아? 2년이나 됐어. 2년 동안 맥주 한모금도 입에 안 댔다구.

(6)의 예문을 보면, [하준이는 준비가 되다, 당신은 아줌마가 되다, 자네는 소설가가 되다, 술을 끊은 지가 2년이 되다]와 같이 [NP₁은/는 NP₂이/가 되다]의 구조를 보인다. 여기에서 {되다}의 의미는 화자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데, NP₁인 ‘하준이, 당신은, 자네는, 술을 끊은 지가’ 등은 서술어에 대한 대상이 되며, NP₂인 ‘준비가, 아줌마, 소설가, 2년이나’ 등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점(목표저점)이 된다. 따라서 {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되다}로 구성된 문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개입될 경우, 시간적 변화에 대한 도달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6라)와 같이 ‘술을 끊은 지가 6년이 됐다’에서는 ‘술을 끊은 지가’가 대상이 되며 ‘6년’이 도달점이 되는데, 실제 사용에서는 NP₁에 해당하는 대상이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시간이 문맥에서 생략된 경우라도 (6라)의 ‘2년이나’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기준점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대상이 나타나 있고 기준점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 언중들은 문맥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 있다.

- (7) 가.P9: 그때가? 출입한 것도, 그리고 앙드레김 출입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고?
 P4: 네.

7) 이 예문들은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말뭉치 중에서 소설의 일부이다. 소설 속 대화의 내용 이므로 구어말뭉치에서 뽑은 예문과는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

- P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저~ 음성이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나.P5: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P2: 아냐 아직 많이 남았어. 어, 그런가?
 P5: 끝날 때 됐어.
 P3: 어이 어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겹쳤네. 왜.
 P5: 됐어요.
 다.P1: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이 정도 얼굴일 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P1: 뭐 쯤 시간이 어, 쫘 됐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검사라는 게 그렇게 그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앞으로 십 년은 더 써 먹지 않을까

(7)의 예들은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기준점에 해당하는 NP₂를 ‘시간이 되다, 끝날 때가 되다, 시간이 좀 되다’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이 심리적(혹은 도덕적) 기준이 되는 도달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되다}의 기본의미는 ‘(어떤)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2 {됐어1} 의미와 사용

{되다}가 나타나는 문장에 기준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라도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혹은 도덕적) 기준이 있고, {되다}는 그 기준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 (8) 현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태호가 달려와서 깨워 일으켰다. "됐어, 돈이 됐어.
 우린 오늘 밤차로 일본 가자." "웬 거야?" "물을 필요 없어."

(8)의 예는 소설에서 나온 예문으로서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기준점에 해당하는 NP₂가 상정된다. ‘돈이 준비가 되다’로 대상에는 ‘돈’, 도달점으로는 ‘준비’로 상정할 수 있다. 즉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대상과 기준점이 되는 NP₁, NP₂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서 ‘돈이 준비가 됐어’ 구

성의 문장으로 상징되는데, 대상이 도달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합하고 만족스럽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9) 가. P2: 답이 뻤어요? 답이 뻤어요?

P8: 예

P2: 뻤어요?

나. P1: 내 머리가 자꾸 걸치는데 요걸 요걸 조금만 옮길 수 없습니까? 이쪽으로. 누구 좀 도와줄래요. 자, 뻤습니다. 이 정도만 뻤지요. 자, 그 다음 슬라이더를 넘기시고

다. P1: 나중에 이 세상 끝날 적에 비슷하게 끝날 거고.

P1: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뻤습니까? 저 쪽에.

P7: 심리학자인데요. 아까요 자기감정을 개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9)의 예도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대상과 기준점이 되는 NP₁, NP₂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화 중에서 추측할 수 있다. (9)는 ‘이것이 답이 되다’로, (나)는 ‘이렇게 옮기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되다’로, (다)는 강연 중에 나타난 발화로서 ‘이것이 답이 되다’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도달점에 이르렀으므로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뻤어, 뻤어요?, 뻤습니까}와 같이 서술형, 의문형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10) 가. 그러니까 그거 항상 끼고 살아야 되요 인포메이션 부분. 배합이 아니라, 아예. 그까 두 개가 다 같이 엉켜 있는 거죠 그냥. 그러구, 예. 뻤어요?

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나오니까 이제. 뻤습니까 마이크 안 나와도 내가 소리가 크니까 근데 다 안 가시고 몇 분이라고 남아 주셔서 그래도 텅 빈 강당에 혼자 떠들어대기보다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 내 마이크를 이거 말고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빼는 방법도 있나? 아, (깜깜하게 하지 말고 불은 켜놓고 하죠. 불을 켜는 게 어디 있나.) 아, 뻤어. 이제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불 좀 켜시요. 불 켜도 잘 보일 거예요.

(10)의 예는 구어말뭉치 중 강연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의 {뻤어}

류 구문에서는 NP₂가 생략되었으나 요건이 완료되어 충족되었음을 즉, 도덕적 혹은 물리적 기준인 도달점에 이르러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술형이면 화자가 원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는 뜻이고, 의문형이면 청자에게 기준이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것이다. 대상(NP₁)이나 기준점(NP₂)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볼 때 화자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던 부분이 해소되어 만족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 경우를 편의상 {됐어1}로 명명한다.

3.3 {됐어2} 의미와 사용

{됐어1}의 만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질문이나 제안을 할 경우 {됐어}류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된다.

(11) 가.P1: 이거 어때?

P2: 됐어{네/예, 응}. 그걸로 하자.

나.P1: 다음 주 레포츠 아이템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2: 됐네요.{네/예, 좋네요, 괜찮네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만해요, *싫어요} 내일 모레로 픽스시켜 줘요.

앞서본 (4)와 같이 예 (11)의 {됐어}류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었다. (가)는 친구 두 명이 생일선물을 고르면서 생긴 발화인데, P1이 물건을 골라 ‘이거 어때?’라고 의향을 묻자, P2는 ‘그것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됐어}를 사용한다. 즉 현재 제안한 발화의 내용이 도달점에 적합하다는 뜻이다. (나)에서는 레포츠 아이템 회의를 계획보다 더 앞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대해 {됐네(요)}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 제안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로서, {네/예, 좋네요, 괜찮네요, 알았어요}와 같은 긍정 응답표지와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긍정 응답표지로 쓰이는 경우는 현재 제안한 발화의 내용이 기준점에 도달하여 만족스럽다는 의미로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됐어2}로 표시한다.

3.4 {됐어3}의 의미와 사용

동일한 {됐어}류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선행발화의 내용에 만족할 경우에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선행발화가 아닌 그 이전의 발화의 내용에 만족할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11') 가'P1: 이거 어때?

P3: 됐어{아니, 싫어}. 처음 봤던 것으로 하자.

나'P1: 다음 주 래포즈 아이템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3: 됐어요{*네/예, *좋아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만해요, 싫어요} 처음 정한 대로 가요.

앞 절에서 살핀 {됐어2}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일한 (11)의 발화라도 (11')와 같이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에서는 친구 두 명이 생일선물을 고르면서, P1이 물건을 골라 ‘이거 어때?’라고 의향을 묻자, P3은 ‘그 전에 본 것이 더 만족스러워 그것으로 정하겠다’는 뜻으로 {됐어}를 사용한다. (나)도 날짜를 바꾸자는 P1의 요청에 대해 P3의 대답은 처음 정한 상태에 만족하므로 현재 제시한 제안은 부정한다는 뜻이다. 즉 P3에서의 만족은 선행발화 이전의 것을 뜻하므로 {됐어}는 현재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아니, 싫어} 등과 교체된다.

앞서본 (3)과 같이 제안을 할 경우 사용된 {됐어}는 부드러운 거절을 나타낸다. 예 (12)를 보면 P1은 P2에게 사과의 의미로 회를 사줄테니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지만, P2는 이에 대해 거절의 의미로 {됐습니다}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시 P1이 구체적으로 광어회를 사준다고 말함으로써 함께 식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P2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려고 {됐어요}로 발화한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회 안 좋아하다’로 말하고 있다.

(12) P1: 내가 광어 일 키로 사줄께, 응?

P2: 됐습니다.

P1: 아니, 내가 광어 회 사준대잖아.

P2: 됐어요. 됐어요.

P1: 아, 내가 광어 회 사준다니까.

P2: 아, 저 광어 회 안 좋아해요.

(13) P1: 지적 수준. 알 만큼 다 아는데 뭐 그런 수준 같은 거야.

P2: 지적 수준 내지는 뭐 사회적 레벨이라든지 뭐.

P1: 얘기해 봐. 계속.

P2: 됐어.

P1: 응?

P2: 됐어{*응/*네/*괜찮아/*알았어/그만해/싫어}.

P1: 아이 좀 더 얘기해 봐.

(13)에서도 P1은 무엇에 대해 말해줄 것을 중요하지만, P2는 {됐어}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즉 P1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묻는 상황이지만, P2 발화자는 이에 대해 더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됐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됐어}류는 {응, 괜찮아, 알았어} 등의 긍정 응답표지와 교체할 수 없고, {아니, 싫어}과 같은 부정응답표지와 교체된다. 이 경우 {됐어}는 ‘대상이 기준점에 완전히 도달했으므로 화자가 이에 대해 만족하는데, 선행 발화의 내용에 만족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의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에서는 이전의 상태가 더 만족스러움을 표시함으로써, 부드럽게 거절하기 위해 {됐어}를 사용한다. 직접적인 거절은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절을 하기 위해, 기준이 기준점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부정의 응답표지도 사용한다.⁸⁾

(14) P1: 저는 그~ 소개해준 분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P2: 예, 하여튼 이쁜 마음을 가졌어요.

8) {됐어}류가 응답표지의 기능을 할 때, ‘지속시간, 강조의 정도, 상승억양, 하강억양’ 등도 의미 차이에 영향을 준다. 이 글에서는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룬다.

P1: 네.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지 됩니다.

P2: 아유 됐어요. 젊은 사람이.

P1: 아유, 그래요. 장미꽃 같아요. 송도순 씨는 아이.

예 (14)는 칭찬에 대해 부정을 하는 {아니, 싫어}와 비교할 수 있다. {아니}와 {싫어}는 직접적이고 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됐어}류를 사용하는데 (15)의 예가 그것이다.

(15) 가. 계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럼 후식을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고마워요." 예리는 계산서를 기다리는 동안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나. 제임스 박은 화들짝 놀라 두 팔을 휘저었다. "아냐, 아냐. 됐어. 그만둬." 그는 처음 내가 보았을 때처럼 세면대 바로 앞으로 가서

다. 계속 할까? 종애가 묻는다. 아니, 됐어. 지원이 대답하고 종애는 수화기 뒤편으로 숨는다.

라. 어어어. 역시 커피는 이 아이리스가 최고입니다. 저, 마시세요. 됐어요. 난. 아니, 커피 싫어하세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됐어}류는 담화에 따라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현재 제안한 내용이 기준점에 도달한 경우가 만족스러울 때에는 그것을 수락하는 긍정의 의미로, 선행 제안의 내용이 더 도달점에 이르러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현재 제안을 거절하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부정의 응답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편의상 {됐어3}으로 표시한다.

3.5 {됐어4} 의미와 사용

앞서 살핀 {됐어3}은 발화에서 거절을 나타내는 부정의 응답표지로 쓰였는데, {됐어4}는 행동을 중단하거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쓰인다.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선행 발화에서 모두 도달할 경우, 현재

상태에 만족하므로 더 이상의 행동이 진척되거나 부가되는 발화가 나타날 경우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 (16) 가.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길들임은 됐어!" 죽어가는 오래된 가치들의 마지막 몸부림?
 나. 예나 지금이나 최동식은 그의 심중을 빼안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됐어, 됐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술 마실까봐 그러는 모양인데,
 다. 조합운동을 과격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저쪽입니다. 필요 이상의 탄압을 했습니다. 됐어! 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라.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내일은 더 좋습니다!" "됐어 됐어, 복창소리 좋고. 한잔 하자."

(16)에서 쓰인 {됐어}류는 화자가 선행발화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화의 완료로 행동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인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됐어}는 {되다}의 'NP이/가 이루어지다'는 의미에 과거형태소 {-았-}이 덧붙여 도달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의 보충 설명은 필요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발화의 중단을 요청하는 완곡한 표현이 된다.

- (17) P1: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P2: 아, 됐어요. 됐어.(*네/예, *좋아, 아니, 그만해) 지금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17)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에 대해 후행발화자 P2는 '됐어요'를 연발하며 선행 발화에서 제시한 제안을 중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됐어}는 이전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부정의 기능을 한다. 이 경우 {됐어}류 앞에 나오는 발화는 변명, 제안 등인데 이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18) 가: 위에 털썩 앉으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기막히게 태평한 미소였다.

"아이구 됐어, 됐어. 손 좀 놔. 대체 왜 이러능겨?"

나. 왜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말만 내 욕을 하느냐고. 아, 됐어, 됐어. 관뒤, 관뒤. 뭐 나한테 잘 해 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 그녀를 쳐다보고 있던 남자가 아니, 됐어, 따르지만, 하고 그녀가 쥐고 있던 술병을 뺐었다.

라. 역 앞에 있는 카페 <엘로우 서브마린>에서 만날까?" "그러든가." "그러든가?... 아니야, 됐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왜 그러는데?"

마. 저 애원처절한 계면조로 목을 짝어 뽑아내는 것 좀 보소. 됐어, 그만하면 됐다. 소리맛은 역시 운봉쪽 동편제가 제일이니께 내가 남원으로 공부

(18)에서는 선행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 관두다, 그만하다} 등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19) 그 아가씨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어디 아는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 병원에 데리고 갑시다. 됐어요, 아저씨.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볼일이나 보세요. 하면서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있기도 민망해서 그 날 변약간의 돈을 방문 앞에 두고, 아가씨, 배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되요.

(19)에서 {됐어요}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이지만 거저에서는 완곡한 거절을 나타낸다. 이 경우 {그만해} 등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만해}는 {됐어}보다도 직접적인 언어 표현으로 {됐어}가 {그만해}보다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된다. 서로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기 때문에 체면유지의 원칙을 지켜 화자 자신의 상황이 만족스러우니 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20)과 같이 청문회에서 쓰인 대다수의 {됐어}류는 발화 중단 요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 가.P17: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졌던 그 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삼십삼 프로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경영진이나 저희들이...
P16: 됐습니다. 이, 저, 해야 될 말이 많겠지만 간명하게 넘어갑시다. 작년 십이월 삼일 자민련 중앙당 조사반에 출석한 양승조 기획관리실장, 본부

장이 증인에게 집권당은 자민련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나.P3: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그 문건 작성 배경에 대한 설명을...

P13: 됐습니다. 없다고 부인만 하면 돼요.

다.P3: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어차피 검찰에서는 파업에 대한 대책 수립을 ...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P13: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20가-다)처럼 선행 발화에서는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됐어}류를 씌으로써 상대방의 말차레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선행 발화 내용으로 기준에 도달했으므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행동이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됐어4}로 표시하는데, {되다}부터 {됐어4}까지의 의미는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됐어}류의 의미 기능>

{되다}	{됐어1}	{됐어2}	{됐어3}	{됐어4}
[도달]	[만족]			
(현재 제안 도달)	→ 현재 제안	→		
	만족)			
(선행 제안 도달)	→ 선행 제안	→	→	→
	만족)			
		→	→	→
				→ [행동이나 발화 중단 요청]

4. {됐어}류의 문법화 과정

동사 {되다}에서 {됐어1,2,3,4}로 확장되는 것은 문법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법화란 일반적인 어휘적 내용어가 일정한 의미의 확장으로 인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어로 바뀌는 것을 이르는데, 응답표지 {됐어}가 완전히 문법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법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 {말이다, -말고, -치고, -가지고} 등과 유사하게 {됐어}는 동사 {되다}와 완전히 분리되어 문법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법화가 진행됨을 살필 수 있다.⁹⁾

먼저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제 1단계 통사적 단계, 제 2단계 형태·통사적 단계, 그리고 제 3단계 형태적 단계로 되어 문법화가 완성되는데 {됐어}류는 이 중 제 2단계인 형태·통사적 단계에 속한다. 문법화는 의미 확장으로 촉발되는데 처음에는 완전한 통사적 구성이므로, 제약없이 자유롭게 쓰인다. 앞서 살핀 {되다}나 {됐어1}의 단계는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구성으로서 통사적 제약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됐어2,3,4}는 형태·통사적 단계로 되면서 형태변화가 자유롭게 않다. 그 형태가 고정되면서 특정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됐어2,3,4}의 경우는 과거형 선어말어미만이 결합되어서 쓰인다. 또한 (21)과 같이 서술형 종결어미라 할지라도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는 불가능하다.

- (21) 가. *된다, *돼요, *됩니다,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나. *되니? *돼요? *됩니다까?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까
 다. *되셨다,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되시겠습니다, *되실 것입니다.
 라. 됐어(요), 됐습니다, 됐네, 됐다, 됐다고, 됐다니까(깐)}

(21)과 같이 {됐어}류는 다른 현재형 서술형 종결어미로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현재형이나 미래형도 불가능하다. 가능한 형태는 {됐어(요), 됐습니다, 됐다, 됐다고, 됐다니까(깐)}등뿐이고, 특히 {*되셨습니다} 등의 형태는 {됐어 1,2,3,4}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1인칭 주어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적으로 본래의 논항 구조로 환원이 불가능하다. {되다}는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논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된 다른 형태로 문법

9) 이와 같은 문법화 현상은 안주호(1997), 이성하(1998), 안주호(2000)에서 다루어졌다.

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의미 면에서, {됐어}류는 <표1>처럼 ‘도달→만족→현재 발화 만족→긍정의 응답표지’로, ‘도달→만족→이전 발화 만족→부정의 응답표지→행동이나 발화의 중단 요청’으로 확장된다. 즉 도달에서 현재 제안에 만족한다면 긍정의 뜻으로, 현재 발화 이전의 상황에 만족한다면 부정의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부정의 의미가 확장되어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같은 의미의 확장 현상은 문법화에서의 일반적 현상과 유사한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선행 발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됐어}류가 쓰이는 것이다. 이는 대화 참여자를 배려하기 위해, 즉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를 완곡하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됐어}류가 사용되는 빈도를 조사해 보면, <표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세종계획의 100만 어절에서 {됐어}는 {되다의 활용꼴을 제외하면 총 976개가 나타나고 있다.

<표2 {됐어}류의 사용 빈도수>

	기능	빈도수
{됐어1}	만족	12% (118회)
{됐어2}	긍정 응답 기능	2.4% (23회)
{됐어3}	부정 응답 기능	37% (357회)
{됐어4}	중단 요청 기능	49% (478회)

여기에서 {되다}의 활용꼴로 쓰인 것은 제외하면 위와 같은 사용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됐어1}은 동사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되다1}의 문장구조로 환원이 가능하므로 문법화된 것은 아니다. {됐어2,3,4}만이 담화 상에서 긍정 응답, 부정 응답, 중단 요청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용에서는 긍정 응답표지로

사용된 것은 많지 않아 전체 2.4%불과한 23회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정의 응답 기능을 하는 것은 37%인 357회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확장된 중단 요청 기능은 가장 높은 비율인 49%로 478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되다}가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부정의 응답 기능과 중단 요청 기능으로 훨씬 자주 쓰임을 알 수 있다. 문법화가 진행되는 변이(cline) 속에서 보면 {되다}에서 {됐어1,2,3,4}로 계층화(layering)되지만 이 중에서 {됐어3,4}만이 특정화(specialization)되어 부정 응답 기능과 중단 요청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화되어감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독자적인 연구가 없었던 응답표지 {됐어}류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폈다. {됐어}류는 기존 연구에서는 응답표지로 여기지 않고 있으나, 담화 맥락에 따라 {예/네, 응}과 같은 긍정, {아니, 싫어}와 같은 부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되다}에서 응답표지 {됐어}류로 의미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되다}는 [NP₁이/가 NP₂이/가 되다]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기본의미를 '(어떤)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함'이라고 보았다. {되다}가 {됐어1}로 됨으로써 대상의 도달함이 화자의 만족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도달점이 현재 발화한 제안 내용이라면 긍정의 응답표지인 {됐어2}로, 선행에서 제안한 발화 내용이 라면 부정의 응답표지인 {됐어3}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됐어4}로 확장되어 사용됨을 살폈다.

{됐어}류는 {되다}에서 출발하여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형태적 고정성과 본래 구조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점, 의미의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됐어}류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시간이나 억양 등 초분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됐어}류의 기능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한국어사전」,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pp.395-420.
- 김민국(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국어학회, pp.73-106.
-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대규(1996), 「한국어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 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17, 연세대 한국어학당, pp.73-106.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0), “‘그러-’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국어학회, pp.113-141.
- 안주호(2012), “감탄사류 담화표지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언어과학회, pp.91-116.
- 안윤미(2012), “담화 표지 ‘그러게’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6, 국어학회, pp.91-118.
- 안의정(2008), “말뭉치를 이용한 어휘의 구어성 측정과 활용”, 「어문논집」 57, 어문학회, pp.93-119.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수련(2003),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 화용적 연구”, 「국어학」 42, 국어학회, pp.177-203.
- 이원표(1995), “의지감탄사 {예, 아니, 글썄}의 담화 분석”, 「사전편찬학연구」 5-6, 한국사전학회, pp.164-218.
- 이원표(2001),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이한규(2011), “한국어 담화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pp.171-197.
- 이한규(2012),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7, 현대문법학회, pp.145-171.
- 이필영(1999), “국어의 응답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텍스트언어학회, pp.71-105.
- 임규홍(1998), “국어 ‘말이야’의 의미와 담화기능”,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pp.159-179.
- 허상희(2004), “‘됐어’의 화용적 기능”, 「우리말연구」 15, 우리말학회, pp.173-190.
- 허상희(2007), “‘괜찮다’의 화용적 기능과 특징”, 「우리말연구」 20, 우리말학회, pp.259-280.

- Brinton, L. J.(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New York.
- Brown, G. & Yule, G.(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B.(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 31, 931-952.
-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i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irin, D.(1994), Approaches to Discourse, Cambridge: Blackwell.
- Schourup, L.C.(1985), Common discourse particles in English conversation, New York/London: Garland Publishing.
- Stubbs, M.(1983), Discourse analysis :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xford, [Oxfordshire] : B. Blackwell.

안주호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전화 번호: 010-5123-3818
전자 우편: ahndream@nsu.ac.kr

원고 접수일: 2014년 11월 12일
원고 수정일: 2014년 12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2월 20일